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협상 재개인가!

- 한·미 FTA협상 시도 즉각 중단하라! -

-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허용될 것이라고 당연시하며 이에 한·미 FTA협상이 오는 2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계자가 이미 한미 FTA협상 개시에 대해 양국 정부가 합의했으며, 내달초부터 협상이 개시될 것임을 언론에 직접 밝히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2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협상 재개를 위한 수단이라면,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 재계, 언론 모두가 국민의 안전과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가 마치 한·미 FTA협상의 최대 걸림돌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 3 또한 세계 농산물 최대생산국인 미국과 FTA체결시 낙농 뿐만 아니라 농업 전분야에 걸쳐 피해 수준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는 국내 총농업 손실 2조~8조 8천억원, 축산물 손실 7,835억원, 우유 및 낙농제품 손실 2,042억원 등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조사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다.
- 4 한·미 FTA가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책 수립도 이뤄지지 않는 상에서 더군다나 이해당사자인 농축산단체와의 의견조회 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더불어 단순히 비교우위를 내세워 농업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하다.
- 5 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은 한·미 FTA협상에 떠밀러서는 안되며 재차 요구한 바와 같이 오직 식품 안전성 및 농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임해야 하며,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한·미 FTA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혀둔다.

2006. 1. 11

한국낙농육우협회